



캠코, '나라On 상생일터' 19호점 개소

캠코는 지난 12월30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옛 행운치안센터에서 '나라On 상생일터' 19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서울 지역 최초 사례인 이번 나라On 상생일터 19호점은 활용되지 않던 옛 행운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 고립청년 및 지역 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캠코



LG U+, 임원진 누적 기부액 3.5억 돌파

LG유플러스는 9년째 이어온 임원 참여 사회 공헌 기금의 누적액이 3억5000만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상무 이상의 전 임원은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한다. 2017년부터 이어져 누적 참여인원은 600명에 달하며, 올해는 홍범식 CEO를 비롯해 68명의 임원이 참여해 약 4000만 원을 모금했다.

/LG유플러스



우미건설,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도입

우미건설은 최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미건설 김영길 사장(왼쪽 세 번째)이 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네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우미건설



한국엔컴퍼니, 소셜미디어 행사 진행

한국엔컴퍼니가 새해를 맞아 한국배터리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소셜미디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오는 1월 5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모바일 주유 상품권 등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배터리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엔컴퍼니



하림, 1.7억 상당 라면·간편식 기탁

하림은 지난달 30일 익산시와 함께하는 '2025 희망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라면과 간편식 3682박스(총 7만284식), 약 1억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기탁식은 익산시청에서 열렸으며, 정현을 익산시장과 정호석 하림 대표이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하림

대한항공, 새해 첫 번째 韓 입국 승객 환영행사 열어

‘새해 첫 고객맞이 행사’ 진행
주인공에 中 20대 쉬 쑤양옌 씨
왕복 비즈니스석 항공권 등 제공

대한항공이 1일 대한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새해 첫 번째로 한국에 들어온 승객을 환영하는 ‘새해 첫 고객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주인공은 대한항공 KE864편으로 베이징에서 출발해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한 20대 중국인 쉬 쑤양옌(Xu Shuangyan) 씨다. 대한항공은 쉬 씨를 위해 인천-베이징 왕복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 항공권 2매와 그랜드 하얏트 인천의 그랜드 스위트 킹 객실 1박 숙박권, 환영



(왼쪽 세번째부터)송기원 인천여객서비스지점장, 고헤호 여객사업본부장, 새해 첫 고객, 이동협 여객운송부 담당 등 관계자들이 1월 1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새해 첫 고객 맞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 꽃다발을 제공했다.

환영 행사에는 고헤호 여객사업본부장, 송기원 인천여객서비스지점장, 이동협 여객운송부 담당 등 대한항공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쉬 씨는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한국 관광지에 직접 가보고 한국 문화를 즐기

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며 “드라마와 영화에서 본 주요 관광지들을 여행하고 콘서트에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솔제지, 안전·보건경영 강화 나서

최고안전책임자, 대표이사급 격상
사업부문별 안전관리 조직 일원화

한솔제지가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다. 한솔제지는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솔제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상무급에서 대표이사급으로 격상시키고 안전부문 대표이사에 고민혁 한솔홀딩스 인사지원실장(사진)을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민혁 내정자는 한솔그룹에 공채로 입사한 후 한솔제지 경영지원팀장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는 한솔홀딩스 인사지원실장(상무)을 맡아 그룹 내 인사 및 안전체계 관련 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번 인사를 통해 한솔제지는 제지사



업부문은 경영지원본부장이, 환경사업부문은 환경사업본부장이 겸직해 나뉘어져 있던 사업부문별 안전관리 조직을 안전부문 대표

산하로 일원화하고 안전 관련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한솔제지 안전부문 대표이사 신설은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CSO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기존 사업장별로 상이했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선제적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청호나이스, AI 영상으로 고객소통 강화

누적 약 80여편 콘텐츠 선배
제품 주요특징 쉽게 전달

청호나이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AI기술을 활용한 영상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제작해 현재까지 누적 약 80여 편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브랜드 메시지와 주요 제품 정보, 사용 팁 등을 짧고 직관적인 영상으로 구현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보다 친근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젊은 층을 주요 타겟으로 한 다양한 AI 영상 시리즈는 빠르게 소비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간결한 구성과 트렌디한 연출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의 주요 특징을 쉽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기존 텍스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청호나이스의 AI 영상 콘텐츠 화면.

방식에서 확대된 영상 중심의 소통 채널을 강화했다.

특히 SF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의 ‘마스트 드롭 : 물의 수호자’ 편은 젊은 층에게 친숙한 공식 예고편(Official Trailer) 형식으로 구현해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크리스마스 및 겨울 시즌 콘텐츠는 AI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계절감에 어울리는 정서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브랜드 친밀도를 강화했다. 해당 영상들은 청호나이스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인사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인재개발원장 원동열 ◇병원장 임용 △인천병원장 조준 △태백요양병원장 한경자 ◇1급 승진 △진주시시장 김영철 △화성지사장 김창수 △경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

원장 김영수 △순천병원 행정부원장 김미진 △태백병원 행정부원장 민현희 ◇2급 승진 △서울동부지사 재할보상1부장 장희윤 △부산지역본부 소음성난청전담TF장 김형조 △김해지사 재할보상부장 노광석

공영홈쇼핑, 中企·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오는 15일까지 모바일 앱에서
‘새해에는 말이야’ 행사 진행

공영홈쇼핑이 새해를 맞아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자사 모바일 앱에서 ‘새해에는 말이야’ 이벤트가 열린다. 새해 소원 댓글을 남긴 작성자 전원에게 2000원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다. 쿠폰은 계정(ID)당 1장씩 발급하며 2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할 수 있다. 쿠폰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이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 모양의 그림 퍼즐을 풀면 적립금도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퍼즐에 3회 이상 참여한 고객 중 2000명에게는 1000원, 6회 참여한 고객 중 1000명에게는 3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한다. 적립금은 30일까지 지급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30일이다.

공영홈쇼핑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최근 세달간 구매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웰컴 1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3만원 이상 상품에 대해 최대 1만원 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는 2000원의 ‘웰컴 적립금’을 추가로 증정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신년을 맞아 우리 중소기업, 농축수산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카카오 그룹 기술 윤리 보고서’ 발간

AI·데이터기술 영향 등 점검

카카오는 1일 그룹 차원의 기술윤리 방향성을 담은 ‘2025 카카오 그룹 기술 윤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책임 있는 기술 활용 원칙을 정리했다.

카카오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서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AI 의사결정 과정의 설명 가능성과 이용

자 권리 보호를 주요 과제로 명시했다.

보고서에는 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와 함께 실제 서비스 적용 사례도 담았다. 내부 심의 프로세스, 임직원 교육, 외부 전문가 자문 구조 등을 통해 윤리 기준을 실행 단계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카오는 “AI와 플랫폼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기술 혁신과 책임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